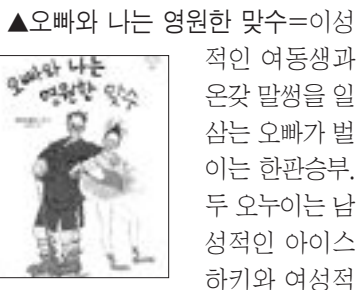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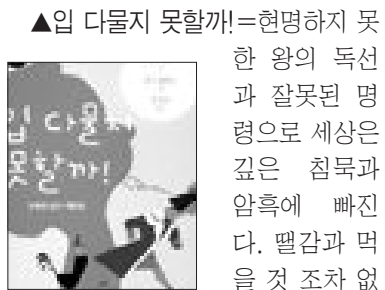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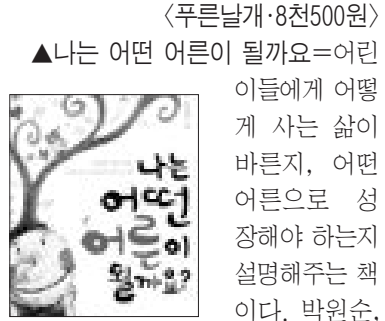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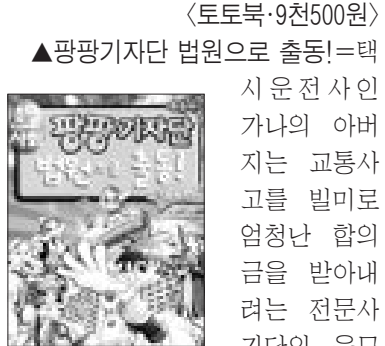
▲오빠와 나는 영원한 맞수=이성적인 여동생과 온갖 말썽을 일삼는 오빠가 벌이는 한관승부. 두 오누이는 남성적인 아이스하키와 여성적인 발레를 바꾸어가며 서로에 대한 자부심과 끈끈한 남매애를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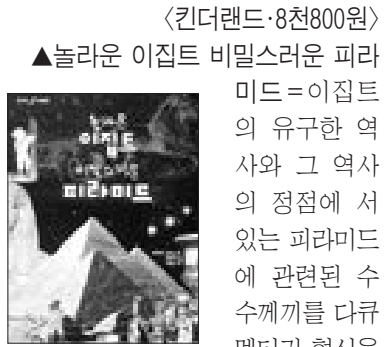
▲입 다물지 못할까=현명하지 못한 왕의 독선과 잘못된 명령으로 세상은 깊은 침묵과 암흑에 빠진다. 뿔깡과 먹은 것 조차 먹어친 세상에서 과연 왕은 어떤 결실을 하게 될까?



▲나는 어떤 어린이 될까요=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르지는, 어떤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책이다. 박원순, 임옥상, 신경림, 지은희, 최완수 등 유명인사 9명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광광기자단 법원으로 출동=텍시운 전사인 가나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받기로 엄청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전문사기꾼의 음모에 걸려 들어 교도소에 갇히게 된다. 광광기자단의 달기와 도치, 송이는 가나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직접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다.



▲놀라운 이집트 비밀스런 피라미드=이집트의 유구한 역사와 그 역사의 정점에 서 있는 피라미드에 관련된 수수께끼를 다뤄 맨터리 형식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풀어간다. 풍부한 사진자료와 그림을 곁들여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문득날개·8천500원〉 〈푸른날개·8천500원〉 〈나는 어떤 어린이 될까요=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르지는, 어떤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책이다. 박원순, 임옥상, 신경림, 지은희, 최완수 등 유명인사 9명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토틀북·9천500원〉

시대 질서에 도전한 역사속 인물들

시원하게 나를 죽여라 이덕일 지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아계 김일경(1662~1724)은 조선 후기 그 누구 못지않게 유명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유명한 만큼 금기시되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소론 강경파인 그는 경종 원년(1721) 12월 경종의 왕권을 위협하는 노론



남명 조식의 초상. '단성현감 사직상소'를 통해 시대를 강하게 비판한 그는 명종 때의 정치가 하늘의 뜻, 즉 백성들의 마음과 어긋나다고 보았다. 〈한겨레출판 제공〉

사대신을 사옹(四凶)이라고 공격하는 신축소를 올려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는 신축환국을 달성한 주역이었다. 그러나 경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노론이 지지하는 영조가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사형 당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고 믿은 그는 죽음을 순간까지 영조에게 "시원하게 나를 죽여라"고 맞섰다.

스스로가 주류 역사학계의 질서와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는 역사저술가 이덕일이 한국사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던진다. 이덕일이 '시대에 도전한 사람들'이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역사 속에서 당대와의 불화로 음지에 묻혀진 역사속 인물들을 복원하는 데 힘써온 저자의 또다른 저작이다.

당대에는 버림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 시대 속으로 뛰박뛰박 걸어온다. 저자는 그 시대와는 불화했던 사람들에게 우리시대로 걸어오라고 작은 오솔길을 놓았다.

남명 조식(1501~1572)은 대봉고 당시의 왕을 향해 '하늘의 뜻이 임금을 떠나갔다'고 비난한 '강심장'이었다. 그가 명종 10년에 올린 '단성현감 사직상소'를 보자.

"전하의 국사가 이미 잘못되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하여 천의가 이미 떠나갔고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소관은 아래에서 시시덕거리면서 주책이나 즐기고 대관은 위에서 어물거리면서 오직 재물만을 불립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



곳하지 않으며... 신은 이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길게 탄식하며 낮에 하늘을 우러러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며 한탄하고 아픈 마음을 억누르며 밤에 멍하니 천장을 쳐다본 자가 오래 되었습니 다."

명종의 치세를 정면으로 부정할 이 상소에는 더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는데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문정왕후에 대한 언급이다. "자전(문정왕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지만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으시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단지 선왕의 외로운 후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조식이 임금을 '신왕의 외로운 후사'로, 문정왕후를 '궁중의 한 과부'로 거침없이 표현한 상소를 올릴 수 있었던 데 대해 그가 백성을 사대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피지배계층으로 여겼던 주자학자들과는 달리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들 외에 주자학 유일사상 폐해를 지적하고 신본제 완화를 주장하다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윤희, 사민평등 사상에 기반한 양명학의 사상적 체계를 세운 정제두, 자신의 계급 이해관계에 반하여 대다수 양반계급이 반대하는 대동방 실시를 죽여까지 관철시킨 김옥, 여성·서얼·빈민 등 약자에 대한 구조화된 차별을 고발하는 시문을 남긴 저항시인 허난설헌, 전면적 체제전복을 도모했던 혁명가 홍경래와 김개남 등 시대와 불화했던 25명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저자는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했던 삶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의 시대는 나의 시대와는 다르다' 라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라고 말한다.

〈한겨레출판·1만4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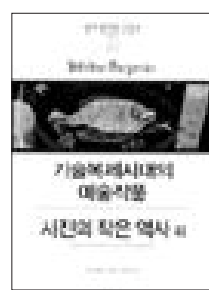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카메라가 발명된 19세기 중엽, 당시의 어느 미술평론가는 카메라의 기능이 놀라 나머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화가들이여, 그대들은 이제 죽었다" 그림을 단순히 기록의 수단으로 바라보았던 단견이었다. 오늘날 화가가 사라지지는커녕 그 아름다운 기능과 역할은 영원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전이 발명되었던 1930년대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다. 매체이론가들은 신문과 영화의 역할이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인하여 거의 소멸될 것으로 확신했었다. 말하자면 안방에 뉴스가 배달되고 극장이 설치되었는데 누가 영화를 보러 따로 극장에 가고, 또 신문을 읽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문과 영화가 소멸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역할은 차별화, 구체화, 산업화되었다.

새로운 것들의 충격으로 옛것에 대한 우리들의 감성이 거의 마비 될 지경이지만,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의 저술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은 과학기술이 전 시대의 것이나 전통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예술감상의 기회를 얼마나 유언하고 평등하게 만들었는

예술작품의 대중화



가를 알려주는 결정적 저술이다. 즉 복제기술이 예술작품의 우상적 아우라(aura)를 종식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벤야민이 사용한 아우라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예술작품이 갖는 '서기'를 일컫는 것인데, 말하자면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 '모나리자' 앞에서 우리들의 주눅 든 모습, 그것을 사모하고 흠모하며 흡사 종교적 경배에 이르게 하는 태도를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존엄의 태도는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루브르박물관을 비롯하여 예술가 다 빈치에 대한 천재성과 절대적 존재성, 그리고 그것에 근접할 수 없는 자본적 가치까지 포함한다.

예술작품이 과연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제의의 대상인가에 대하여 벤야민의 답은 과학기술이 그것을 해결하였다고 말한다.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이 출판 당시인 1936년부터 오려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들어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된 것은 과학기술에 의한 복제기술의 발전이 심화될수록, 신매체에 의한 예술의 알려고리가 깊어질수록 아우라는 근거를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나리자를 보러 루브르에 가지 않더라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벽화를 보러 로마의 바티칸에 가지 않더라도 어디서나 감상과 수용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사진과 비디오의 무한정 복제기술은 우리의 안방으로 이미지를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예술작품의 유일성과 원작성은 필요 이상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예술작품의 다변화된 복제기능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예술작품의 소장품 기능보다는 전시기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대중과의 접촉을 유발시킨다는 차원에서 수용자비학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다량의 복제매체를 소유한 권력이나 특히 언론이 대중주의 미학을 통해 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은 남아있다.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 등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학문적 유대를 함께 하였던 벤야민의 이 저술은 오늘날 영화이론이나 신매체 중심의 시각예술이론을 리드하는 원조가 되었다.

이흥우 <광주비엔날레 상임부이사장>



현대미술작가 10인의 작업실 공개

예술가의 방 김지은 지음

몇년 전 편 현대 미술 관련 서적 '서늘한 미안'으로 만만찮은 내공을 보여준 MBC 아나운서 김지은의 두번째 책 '예술가의 방'을 내놓았다.

첫번째 책에서 현대 미술 작가들에게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냈던 김 씨는 이번엔 카메라를 직접 들고 화가들의 작업실을 찾았다.

캐릭터 '퐁구리'로 유명한 권기수, 쌀 작업으로 알려진 이동재, 슈퍼맨과 슈퍼 등 서양 캐릭터를 유쾌한 한국화로 풀어낸 손동현, 카툰리스트 김동범 등 재기 넘치는 젊은 작가들과 함께 중견 작가 유석남 등 모두 10명의 작업실이 공개됐다.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작업 세계 뿐 아니라, 속내와 사생활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작업 공간 뿐 아니라 작품의 탄생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풍부한 일러스트가 화가들의 방을 멋지게 재현해 냈다.



〈서해문집·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일간지 연재 200여편의 인생살이 소개

독고다이 이기호 지음

특공대의 일본식 발음으로 혼자를 뜻하는 '독고다이'가 '독(獨)고(GO)다이(DIE)'라면 '오로지 홀로(獨) 살다가(GO) 간다는(DIE)'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철학적인 의미를 담을 수도 있다.

광주대 문창과 교수이자 소설가 이기호가 소박한 세상살이를 특유의 입담으로 풀어 첫 번째 산문집 '독고다이'를 냈다. 작가가 지난 2007년부터 1년 넘게 일간지에 연재했던 200여 편의 글을 묶은 것이다.

원고지 5매 내외의 짧은 글 속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작가의 고단한 일상을 비롯해 서투르지만 연로한 부모님을 걱정하는 아들 등 누구나 한번쯤은 겪고, 겪게 될 평범한 인생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솔직한 과유가 느껴지는 글을 읽다 보면 인생을 바라보는 젊은 소설가의 예리한 시선뿐만 아니라 잘사는 일보다 착하게 사는 일이 더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



〈랜덤하우스·1만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부동산 매각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아이포시즌' (Aiposizon) with details on property listings,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지우 부동산컨설팅' (Jiwoo Real Estate Consulting) with details on services, contact info, and a representative phot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승공인중개사' (Daesung Real Estate Broker) with details on various property listings and contact inf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생계형, 음식, 호프, 고치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Real Estate Broker for food and catering) with details on services and contact info.